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UR협상 타결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

노영한
(대한양돈협회 전무이사)

동서간의 화해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우리는 전시체제에 들어갔다.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에 선전포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오히려 범죄가 승리할 가능성마저 있어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교통문제도 심각하다. 안전벨트 착용이나 교통질서 위반 단속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마비로 오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무역협회 조사에 의하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차량운행비 추가비용과 수송시간 지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며 앞으로 10년간 2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합사료의 운송비 추가부담 등으로 이것을 축산농가들도 피부로 느껴온 것이다. 인천에서 서울간을 3시간이면 다니던 것이 이제는 7시간으로 되었으니 경제적 피해도 피해려니와 짜증·불만이 말이 아니다. 배합사료회사들이 하

치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이해가 간다.

성장산업으로 알고 있었던 금융분야도 UR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금융시장 기반이 무너진다고 야단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란 말이 실감난다.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 UR협상이 EC와 미국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UR협상만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길이 열리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우리는 이미 지난해 GATT 18조국을 졸업하면서 97년까지는 모든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을 약속한 바 있으며, 다만 그 시기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산업구조 조정만 이룰 수 있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일부 학자들 중에는 양돈·양계는 국제경쟁력이 있으니 수입개방이 되어도 별 문제가

UR 협상만 타결되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리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우리는 이미 지난해에 GATT 18조국을 졸업하면서 97년까지는 모든 축산물의 수입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UR 협상이 타결되어 보조금이 삭감되어도 자조금제도 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주장이다. 투자하고 구조 조정이 끝나면 경쟁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산업이 발전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위기감을 들 수 있다. 열대지방의 자원이 풍부해서 의식주에 문제가 없는 곳이 후진국으로 남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아직 냉장고가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 영국에서 어부들이 먼 곳에 가서 청어를 잡아 배 밑에 물과 같이 넣어 운반을 했지만, 시장에 올때는 모두 죽어 싼값으로 판매했는데 유독 한 어부만은 청어를 산 채로 신고와 비싼 값을 받고 있어, 친구들이 그 비법을 물으니 청어와 함께 청어를 잡아먹는 바다메기를 넣는다는 것이다. 친구들이 깜짝 놀라 메기가 청어를 잡아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잡아먹어 보아야 몇마리나 잡아먹겠으며, 청어들이 잡히지 않으려고 긴장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양돈업계에 많은 긴장의 요소들이 있다. UR협상 외에도 통조림, 소시지의 개방과 시장잠식,

그리고 쇠고기 수입량의 폭발적인 증가,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물가인상 및 소비위축, 인력난, 분노처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투자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위기감이 지나쳐 포기하는 양돈농가가 40%에 이르렀으나, 금년에 값이 회복되니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업계의 긴장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볼때 외부보다는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최근 심포지움이나 공청회에서 지적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UR협상이 타결되어 보조금이 삭감되어도 자조금제도 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 등 준비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제 91년 3월 1일에 발표될 수입개방 예시에 따라 UR협상의 타결과 관계없이 준비를 하여야 할 때이다.